

격조사 사용의 발달 및 오류분석

김수진, 오종필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Developmental usage and errors of Korean grammatical markers

Soo-Jin Kim, Jong-phil Oh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n Nazarene Univ.

sjkim@kornu.ac.kr, crownunity@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 of grammatical markers of Korean speaking children(from 3 to 8 years old) and adults. Participants had no problem of speech and languag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usage of grammatical markers were increasing from 3 to 8 years old even though it was still increasing after 8years old. Specifically, they used subjective marker and adverb marker at all ages in large. A few adjective marker were used at all age group including adults. But the frequency of objective marker is increasing from 3 to adults The pattern of usage is getting similar to adult's. The present study was also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errors of grammatical marker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s among the age-groups. The substitution errors wer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all age-groups

I. 서론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문법형태소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문법형태소는 영어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상발달아동뿐 아니라 언어

발달장애 혹은 청각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의 사용능력 특히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있다 [1,2,3,4,5,6,7]

단순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의 조사 사용능력을 비교한 연구들은 다른 언어적 특성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지는 장애 판별지표로써의 조사사용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1,4,7] 이에 비해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우리말에서 조사의 발달지표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2,3,5,6]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언어진단을 위해서는 판별지표와 발달지표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 지표는 언어치료의 목표와 내용이 될 수 있다. 우리 말 특성상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구문구조적으로 발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치료에서 조사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순이 자유로운 우리말은 복잡한 의미관계를 이루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대부분의 조사발달 연구들은 확령전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령기 이후 성인까지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발달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모국어 성인화자의 사용형태가 목표형태임을 감안한다면 성인기의 사용양상에 대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된다. 언어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표집문맥과 분석틀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발달양상과의 비교를 위한 성인언어 자료는 아동언어 발달 자료 수집 시 유사한 맥락에서 같은 분석자가 같은 조건에서 발화를 표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격조사는 의미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같은 형태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고 다른 형태가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8]. 기존의 발달 연구들은 격조사가 나타난 현상의 기술을 중시하여 의미분류와 문법적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격조사를 분류하는데 있어 주격, 목적격, 처소격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때 처소격은 부사격의 세부 의미분류 중 하나이다.

발달자료분석은 양적인 정보뿐 아니라 오류분석과 같은 질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Pinker[9]는 문법형태소 습득 초기단계에서 어간과 접사를 하나의 단위로 습득하여 분리하지 못하다가,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 어간과 접사가 서로 다른 언어적 단위임을 알게 되고 분리가 가능해지므로 초기단계에는 문법형태소의 오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법형태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조명한[6]은 사회적 사용의 필요성(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하는 '랑, 하고, 와' 같은 접속조사의 출현이 빠른 것이 증거), 인지 발달, 지각적 현저성, 문법적 복잡성, 의미적 복잡성을 꼽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문법형태소 습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오류분석 결과의 의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습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앞에서 Pinker의 지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어와 인지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의의로는 오류형태를 일반아동이 보이는 오류특성과 비교하여 장애특성에 따른 판별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7,10,11,12].

본 연구에서는 접속조사와 보조사등을 배제하고 순수한 격조사들에 한하여 아동과 성인의 자발적인 발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사용빈도와 각각의 격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별로 나타난 격조사의 오류들을 오류형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피험자

이 연구의 대상 아동은 만 3세에서 8세의 아동 증 표준어를 사용하며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아동 60명이다 연령별로 10명씩 수집하였으며 성비는 갈도록 하였다. 아동들이 특이한 사항 - 발달 지체나 조음 상의 문제 등 - 을 보이지 않는 지 관찰하고 부모에게 확인 한 후 자료수집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가. 자발화 수집

말 자료는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발화 수집을 위해서 학령전기 아동과는 주로 소꿉놀이와 그림책 보며 말하기, 자신의 사진 설명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유도하였으며 학령기 아동과는 책 읽고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말해주기와 소꿉놀이, 아동의 관심사 등으로 자발화를 유도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그림책은 '빨간 모자'와 '엄마가 사라졌어요.'를 사용하였으며 소꿉놀이에서는 '행복한 우리 집'을 사용하였다.

나. 전사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는 과정을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로 녹화하여 언어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전사하였다. 자발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화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3-4회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두가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수집하였다. 전사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세 차례 이상 서로 바꾸어 녹화내용과 전사내용을 대조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1) 각 아동별로 500발화 이상을 전사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맥락별로 일부분-120발화-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20발화에서 격조사([13 참조])를 세고 총 격조사 중 각 격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2) 격조사 오류는 500발화 전체에서 선정하였다. 발화의 앞뒤 맥락을 통해 발화 의도를 참고하고 성인의 입말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오류 중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오류로 선정된 경우만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서 관형격 '의'의 경우 성인들도 '에'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할머니에 집에 가요” “막내에 선물이라 그랬어요” 와 같은 발화에서 ‘에’는 오류로 분석하지 않았다.

(3) 오류내용을 두 가지 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나는 격조사별 오류 즉 주격조사가 와야 할 자리에서 일어난 오류 혹은 목적격, 부사격, 보격 조사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분석하였다. 다른 분석틀로는 오류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다른 격조사 범주로 대치한 경우(범주간 대치), 같은 격조사 범주에서 대치한 경우(범주내 대치), 격조사가 탈락(탈락) 및 삽입 혹은 중복사용(삽입)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연령별 격조사 사용의 발달

3세에서 8세까지 120발화에서 격조사의 사용빈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증가세는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연령에서 주격과 부사격 조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그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중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였다.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는 3-4세 경에 각각 전체 조사 중 4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성인기에는 35%정도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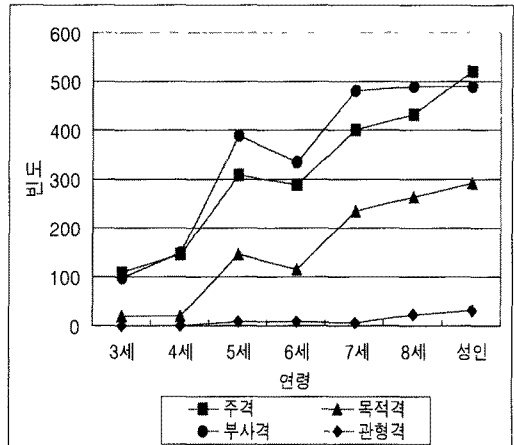
목적격은 3세에서 8%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7세 이후에는 20%를 차지한다. 7-8세의 산출빈도와 비중이 성인의 것과 매우 유사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관형격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4세까지는 단 1회만 관찰되고 5세 이후에 조금 나타나고 8세 이후에야 20회 이상 산출되기 시작했으며 성인에게 있어서도 31회만 산출되어 전체 격조사 중 2.3%를 차지하였다(<표 1>, <그림 1,2> 참고).

2. 연령별 오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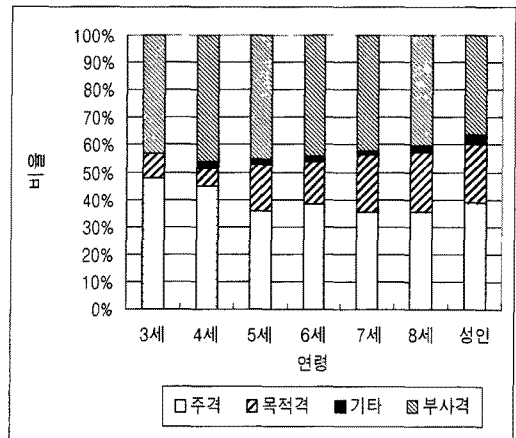
전체 60명 발화표집에서 격조사의 오류는 29회가 나타났다으며 연령별 격조사 오류는 <부록 1>과 같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표 1> 연령별 격조사 사용빈도(회) 및 비중(%)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성인
주격	빈도	108	146	308	290	401	432	519
	비중	47.6	44.9	35.9	38.5	35.5	35.6	38.2
목적격	빈도	20	21	145	113	234	264	292
	비중	8.8	6.5	16.9	15.0	20.7	21.7	21.5
부사격	빈도	99	150	390	334	480	489	504
	비중	43.6	46.2	45.5	44.4	42.5	40.2	37.1
관형격	빈도	0	1	9	8	6	22	31
	비중	0.0	0.3	1.0	1.1	0.5	1.8	2.3
보격	빈도	0	3	0	1	4	8	0
	비중	0.0	0.9	0.0	0.1	0.4	0.7	0.0
호격	빈도	0	4	6	7	4	0	12
	비중	0.0	1.2	0.7	0.9	0.4	0.0	0.8
총합	빈도	227	325	858	753	1129	1215	135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 연령별 격조사 사용빈도



<그림 2> 연령별 격조사 사용비중

3. 오류유형별 분석

가. 격조사 범주간 대치오류

아동들이 보인 29회의 격조사 사용오류 가운데에서 격조사간 대치가 11회로 오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격조사 범주간 대치 11회는 3세에서 8세까지 고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양상이다. 이 중 약 반에 해당하는 5회(<부록 1>의 33, 42, 55, 56, 82번)가 목적격조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였다. 목적격은 사용빈도 및 비중연구 결과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주격과 부사격에 비해 나중에 발달하는 격조사이다. 또한 대화체에서 많은 경우 생략하고 있으며, 지각적 현저성도 떨어진다. 나. 격조사 범주내 대치오류

5회의 범주내 대치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 중 두 번(<부록 1> 51, 54번)의 오류는 뒤에 나올 조사의 영향을 미리 받아서 동화된 예이다. 나머지 세 번의 오류는 모두 부사격에서 '에'와 '에서'를 잘못 사용한 예이다. 장소를 의미하는 '에'와 '에서' 가운데 '에'의 출현이 앞선다. '에'는 장소에서 그 의미가 시간, 원인 등으로 확장되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격조사형태이다. 4세 경에 '에'보다 나중에 발달하는 '에서'가 '에'의 자리까지 과잉 사용되고 있다(<부록 1>의 43,44번).

다. 첨가오류

네 번의 첨가오류 중 한 번(41번)을 제외한 세 개의 오류가 모두 주격조사를 이중 사용한 것이다. 다른 연구들의 격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아동발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라. 탈락오류

다섯 번의 탈락 오류는 대부분 3-4세에 나타났다. 다른 오류형태에 비해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락된 격조사는 모두 부사격이었다. 56번 문장에서만이 목적격과 부사격 조사가 모두 탈락되었다 그러나 이 중 목적격 조사는 '어깨(에)'라는 부사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류라고 분류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하여 정확한 오류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56번을 제외한 나머지 탈락오류 문장들은 부사격의 장소인 '에서'와 도구의 '로'를 탈락시킨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용비중이 높은 격조사들의 오류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오류율로 본다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오류내용을 통해 격조사의 학습과 발달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우리말에서 연령별 각 격조사의 사용빈도와 비중을 조사한 결과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는 3세 이전인 언어발달 초기부터 발달하며 그 사용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목적격 조사의 사용은 3세 이후 조금씩 출현하다가 5세에서 사용이 조금 늘다가 7세 이후 성인의 사용빈도와 유사해진다. 또한 관형격은 거의 1회 이하의 사용 예를 보이는데 성인의 구어에서도 2,3회만 출현하여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 결과는 앞으로 정상 비정상적 언어발달을 검사하거나 교육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류특성에 있어서는 대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2]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 [1]은 첨가오류 혹은 이중적 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문법형태소 전반을 분석한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2]에서 6세의 오류가 매우 급증하였다가 8세에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자료의 분석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발화수집절차 및 대상자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세 무렵에는 탈락오류가 지배적이지만 4세 무렵에는 후기 발달 격조사인 '에서'가 '에'의 위치에 대치되는 과잉사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면 이를 과잉 일반화시키다가 특징적인 상황과 문맥에 맞추어서 세분화해가는 방식으로 발달해 간다는 일반적인 어휘발달의 양상이 문법적 형태소의 습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격조사의 이중사용은 문법적 형태소를 분리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휘와 함께 습득하게 되었다가 후에 분리해가는 방식으로 발달해간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증거는 주격조사의 이중사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치오류의 경우에도 주체(동물)에 대하여 주격조사(<부록 1>의 45,63,82,86번)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발달이정표로서의 격조사 사용 가능성 확인. 낱말을 연결하는 구문적 능력을 훈련하고자 할 때 훈련목표 격조사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구문능력을 반영하는 평가치로 활용 가능성 시사했다.
2. 오류내용 참고로 훈련해야 할 격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3. 정상발달 중에 나타나는 오류특성과 특정 장애군 (예: 청각장애, 단순언어장애 등)의 오류특성과 비교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는 분석 사례수가 연령별로 10명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용빈도에 있어 5세가 6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등이 사례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더 많은 발화자료를 보강하여 재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격조사 오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수영 · 배소영. (2001).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징. 『음성과학』, 9, 77-89.

[2] 김영태 · 홍경훈 (2001). 이야기회상과제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조사 사용 분석: 발달적 오류형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1(2), 111-131.

[3] 배소영. (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말-언어장애 연구』, 2, 27-42.

[4] 이은정 · 황민아. (2001).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조사처리능력. 『2001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음집』.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5] 이은경. (2000). 2-4세 유아의 격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조명환. (1982). 『한국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7] 한효섭 (2003). 청각장애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재욱. (2000). 격조사의 기능에 관한 인지미론적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9] Pinker, S. (1984). *Language learn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0] Leonard, L. B.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1] Oetting, J. & Horohov, I. (1997). Past tense marking by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40, 62-74

[12] Rice, M. L & Oetting, J B (1993). Morphological deficit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Evaluation of number marking and agree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1249-1257.

[13] 남기섭 · 고영근. (2002).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부록 1> 연령별 격조사 오류

오류발 화번호	발화(이 오류)	의도/표현	오류범주	오류격
3세	31 오늘에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은/에	범주간	부사
	32 여기_ 나가버려	에서/∅	탈락	부사
	33 땅에 보면 안되고	은/을	범주간	목적
	34 아저씨가 가위_ 잘라서	로/∅	탈락	부사
	35 야구방망이_ 친다	로/∅	탈락	부사
4세	41 여기 화장실_ 손씻었다	에서/∅	탈락	부사
	42 여기 늑대가 빵의 먹어서 잡아가요	을/이	범주간	목적
	43 그냥 티비 의자에서 앉는 거야	에/에서	범주내	부사
	44 밖에서 나가서 놀아	에/에서	범주내	부사
	45 동물들이에서 친구들이 나온대	∅/이에서	첨가	관형
	46 새들이가	이/이가	첨가	주격
5세	51 숲 속 친구들만 놀고만 있어	이/만	범주내	부사
	52 삼년만에 돌아온 딸이 집의 도착했는데	에/이	범주간	부사
	53 문을 잠겨있어서	이/을	범주간	보격
	54 할머니가 제가 말씀을 안들어서 이렇게 된 거	는/가	범주내	주격
	55 신데렐라가 새엄마 머리에 빗겨주고 있어요	를/에	범주간	목적
	56 사냥꾼 아저씨는요 늑대_ 어깨_ 매고요	를/∅ , 에/∅	탈락	목적, 부사
6세	61 눈의 쪼아대고	을/이	범주간	목적
	62 동생은 언니나 놀아줘	랑/나	음소오류	부사
	63 다른 사람들의 인기도 많고	한테/이	범주간	부사
7세	71 애 둘이가 엄마를 따라갔는데	이/이가	첨가	주격
	72 색종이를 풀고 붙여가지고 딱 붙이는 거야	로/고	음소오류	부사
8세	81 물론 쏟아지면은	이/로	범주간	주격
	82 공주는 왕자님의 첫눈에 봐가지고	을/이	범주간	목적
	83 어떤 애들이가 다 게임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이가	첨가	주격
	84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에서/에	범주내	부사
	85 저도 그 몸이 이상하게 태어난 친구들을 조금 불쌍하고요	이/을	범주간	주격
	86 늑대가 배를 잘라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구해가지고	의/가	범주간	관형
	87 두 아이는 은행에 나와서요 둘이 갈려고 그랬는데요	에서/에	범주내	부사